



글씨는 인격'이라는 소신으로 서도시대를 즐기는 원법 스님의 필체는 거침없고 시원스럽다.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원법 스님 (대전 보은정사 회주)



묵향처럼 은은한 '정진'



石師念願 深助自得(석사염원 심조자득)
行者靜坐 畫仙心醉(행자정좌 화선심취)
寫生囊括 江船風流(사생낭括 강선풍류)
浩然之氣 報恩三寶(호연지기 보은삼보)

성취를 염원하여 정진 또 정진 스스로 터득하려다. 정좌한 노행자 망상에 들고 심취된 화백 고상한 자태여. 난중에 실경과 의백일뿐 강선풍류는 아예 말하지 말라. 마음을 넓고 크게 깨달아 보은삼보 하려다.

태 고종 원로회의 부의장 원법(元法) 스님(대전 보은정사 회주)의 방에 걸려 있는 한시의 일 부분이다. 스님이 임경정의 활동 무대였던 포천 고석정을 방문해 지은 시라고 한다. 스님은 시(詩), 서(書), 화(畫)에다가 차(茶)와 음악(音樂, 거문고)까지 조예가 아주 깊다. 스님이 8월 21일 서울 법륜사에서 열린 한국전통문화진흥관 상량식에 상량문을 쓴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 간곡히 진언을 부탁드렸다.

스님은 아주 난감해 하면서 어렵게 허락했다. 시봉을 들던 송강 스님(경수 도성암 주지)은 "원법 스님이 매사에 겸손하고 하심을 생활화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라며 "스님은 아주 소탈하시다"고 말했다. 상좌들이나 불자들에게도 '가난한속에서도 바른 삶을 중히 여긴다'는 '우도불우빈(憂道不憂貧)'을 가슴에 새기라고 가르친다. 살림살이가 어렵더라도 잘사는것이 욕심이 나서 도를 벗어나지 않고, 곤궁함으로 인해 가볍게 스스로의 품격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스님은 늘 '거진음식과 반찬없는 음식으로 평생을 보내는 삶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겸소함은 화장실겸 세면실 옆에 붙어있는 1.5평 남짓한 스님의 방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스님의 방은 작은 옷장과 이불과 책 몇권이 전부였다. 송강 스님은 "스님은 좋아하는 차도 중좌이상은 절대 마시지 않으신다"고 귀띔한다. 다음날 새벽 특! 탁! 소리에 잠을 깬다. 스님이 요가를 하는 소리다. 스님은 40여년전부터 새벽에 일어나기전 30분동안 요가를 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신 뒤 등이 뜨자 산행에 나섰다. 산행은 스님의 하루일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산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건부 허락에 들어있던 약조이기도 했다. 스님은 한시간이 지나서 절에 돌아왔다. 그리고는 한참동안 절 주위를 정소했다. 아침공양을 한 다음 스님은 붓을 들었다. 개업한

불자를 위해 화사명을 써주기로 했다고 한다. 서예실의 책상위에는 헝거워지고 닳을대로 닳은 한한사전 몇권이 놓여 있었다. 글을 한자 한자 사전에서 찾은 뒤 습자지에 한 획 한획 이서했다. 그런다음 한글을 붙인 뒤, 옆의 송강 스님에게 다시 확인하게 한 뒤에야 화선지를 펴게 했다.

서예와 다도교육 30년째 차·국악에도 조예 깊어 이재복 스님 詩, 108수 엄선 직접 써 서화展 열 계획

한한사전을 살짝 펴보니 거의 모든 글자에 연필자국이 덧붙여 있다. 다른 장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글자를 한번씩은 사용했다는 얘기다. 스님의 꼼꼼함과 완벽함이 엿보였다. 붓으로 쓴 글자는 모두 수천번 써본 당연히 아는 글자지만 한일(-)자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글자를 쓸때는 거침없이 시원스럽게 획을 그었다. 마지막 낙관도 자로 제고 연필로 표시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찍었다. 스님의 모습은 도장을 찍을 때도 정성을 들인다는 '심신관인(審眞印)'의 모습이 었다.

이는 스님이 서예를 처음 배울때 기초만 11년을 했다는 신도들 사이에 회자되는 얘기와 상통한다. 글을 쓰는 도중에 서예와 다도를 배우기 위해 11명의 신도들이 찾아왔다. 서예실에 들어오는 즉시 스님께 집에 써온 글을 내보인다. 신도들은 오랫동안 배워서인지 모두들 훌륭한 필체였다. 하지만 스님은 빨간 싸인펜으로 잘못된 부분을 여지없이 찾아내 지적해준다. 보은정사는 신도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30년전부터 서예와 다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글씨 잘 쓰는 것을 쳐주지 않는다. 그래서 문학생들에게 서예전에 출품도 못하게 한다. 인격이 글씨를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가르침이다. 서예지도에 이어 신도들이 교리공부 시간이라고 칭하는 '탁마'를 했다. 신도들은 일주일에 한번씩은 탁마시간에 선지도 읽고, 불교경전의 한부분을 강독했다. 이날 탁마시간에는 '쿠보은중경'에 대한 법문(25분 법문 참조)을 했다. 이렇게 점심공양 시간까지 3시간동안 한지도 쉬지 않고 서예와 다도시간을 진행했다. 오후 일과는 종단에서 찾아온 스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으며 틈이 나면 붓을 손에 들었다. 스님은 현재 용봉당 이재복 스님이 평생 지은 시 300여편 중에서 108수를 엄선하여 서체로 내년 봄쯤 용봉당 이재복 스님 열한 16주기 유고시 서화전을 열기 위해 준비중이다.

불자들이 써 온 글씨를 점검하는 원법 스님(사진 위)과 다도시간에 진행되는 교리공부.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타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 1동 133-33 대창빌딩 1층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2006학년도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후기 신(편)입생 모집

귀의상보하옵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례·의식·범음(법배)을 계승·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6년도 후기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배움에 어려움이 많아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식의 진행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을 좀 더 체계있게 전승발전 시키고자 범음·법배·요장 및 작법 등 예경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의식에 관심있는 스님·불자님들 포교사님들의 많은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해산 승후 -

- 모집학과**

학 과	교육 내용	모집인원	비 고
기본과정	예경의식 및 조·석 예불, 불공시식	20명	6개월
전통의식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49재의식, 천도재,점안 및 제공의식, 전통교육	20명	1년
요장·작법과정	바라춤, 나비춤, 법고 등 사물 다루는 법, 오적	10명	6개월
- 응시자격** :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 1) 수계 득도한 자
 - 2) 오계를 수계한 자
- 전형방법** : 서류전형(면접)
-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4회(月~木)
▶ 접수일자 : 2006년 9월 1일 ~ 9월 19일
▶ 입학일 : 2006년 9월 20일

▼ 찾아오시는 길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1967-7093

금강불원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